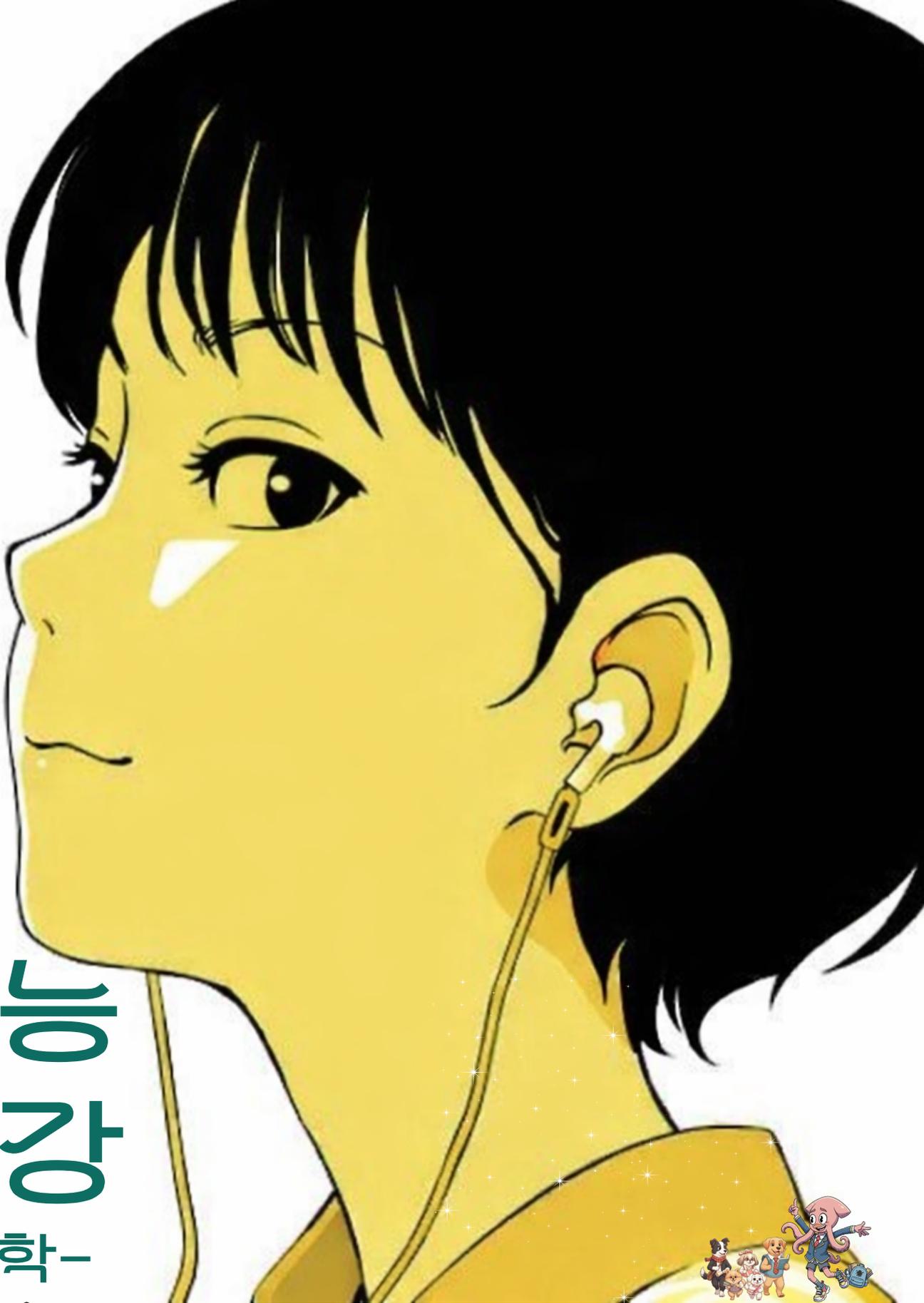


귀 소 리

-문학-



[개념 학습 03]

귀소리 (문순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고 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고 1~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중 1~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징소리

| 문순태

📍 핵심 정리

작품 개관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과 인간적 정이 소멸되는 소설

이 소설은 댐 건설로 고향 방울재를 잃은 칠복이 딸을 업고 떠돌며, 고향의 기억이 담긴 징과 징 소리에 집착하며 수몰된 인근에서 고향 사람들의 환영을 보며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계를 위해 칠복을 내쫓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징 소리는 남아 사람들의 잠을 깨우며, 상실된 고향의 슬픔과 시대의 비극을 울린다

작품 개관

- **갈래:** 중편 소설, 현대 소설
- **성격:** 사실적, 비극적, 상징적, 서정적
- **배경:** 시간(산업화 시기)/ 공간(방울재)
- **주제:** 고향 상실과 정신적 붕괴
- **특징**

1. 상징적 소재인 '징'의 소리를 중심으로 전개
2. 현실과 환각이 교차되는 서술 방식의 사용
3. 산업화의 이면을 다룬 문제 의식의 반영
4. 비극적 인물을 통해 인간 소외와 상실감 표현

전체 줄거리

댐 건설로 고향 방울재가 수몰되면서 칠복은 아내를 잃고 딸을 데리고 떠돌이 신세가 된다. 아내를 찾아 헤매다 가진 돈마저 모두 잃은 그는 방울재에서 나뉘 가진 징 하나만을 지닌 채 유랑한다. 칠복은 그 징을 딸처럼 아끼며 잠잘 때도 베고 자는데, 그때마다 징에서 고향 사람들의 울음과 징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소리는 칠복의 기억 속에 남은 방울재 공동체와 상실의 아픔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한다. 결국 그는 징 소리에 이끌리듯 딸을 업고 하루 종일 걸어 수몰된 방울재 인근으로 돌아온다. 칠복의 눈에는 수몰된 마을 대신, 과거의 방울재와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히 보인다. 그는 환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징을 울리며 고향의 축제를 되살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의 행동은 낯 시꾼들의 불안을 사고 방울재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댐 인근에서 매운탕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방울재 사람들은 결국 칠복을 쫓아내기로 결정한 다. 칠복은 고향에서마저 쫓겨나지 않게 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통사정한다. 하지만 고향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를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응답한다. 결국 칠복은 딸과 함께 버스에 태워져 다시 길 위로 내몰린다.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 중 봉구는 빗속에서 들려오는 징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징 소리는 떠나간 칠복의 혼란스러운 정신이자, 사라진 고향 공동체의 울음처럼 울린다. 작품은 산업화가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상처와 인간 소외의 비극을 깊은 여운으로 드러내며 끝난다.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골에서 벌어 온 돈마저 모두 까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뉘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았다.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면서도 방울재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도 징에서 마치 방울재 할머산 너덜경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스름하게 들려오곤 했다.

그때마다 방울재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칠복은 수몰된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낯시꾼들의 불안을 산다. 이에 낯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재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기로 한다.

“강촌 영감님, 부탁드립니다. 지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다시는 휘방 치지 않겠구먼유. 이렇게 빌게유.”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로 달려붙어 어깨죽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발괄 빌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울대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울이 시큰시큰했다.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거여!”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덕석 껴안으며 통 사정을 했으나,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당물고 참아 냈다. 강촌 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이 남아 있을 리 없지 않 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짐을 찾아 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높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허니께 하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거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거.”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가 켈룩켈룩 기침을 하자, 비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쓰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내용 탐구

소재의 상징적 효과

- | | |
|--------|--------------------------------------------------------------------------------------------------------------------------------------|
| 징 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몰된 방울재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칠복의 그리움·죄의식·정신적 혼란 현실을 견디지 못한 인물이 붙잡는 과거의 잔향 |
| 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 딸·고향·공동체를 대신하는 상실 보상물 |
| 댐 & 호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화의 결과물 공동체를 삼켜 버린 비인간적 현실 |

등장인물의 내면의식 변화

- 떠돌이 생활 → 고향 상실의 현실 인식
- 징 소리에 집착 → 과거에 매달리는 심리
- 환각 심화 → 현실 부정과 정신적 붕괴
- 추방 → 고향·공동체로부터의 최종 단절

“환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상실이 만든 심리적 결과”

소설의 서술상 특징

- 현실과 환각의 교차 서술 →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체험적으로 제시.
- 청각적 이미지의 반복 → '징 소리'를 통해 감정의 지속성과 집요함 강조.
- 객관적 서술 + 인물 인식 중심 → 독자가 인물의 혼란을 함께 경험하게 함.

행위에 대한 죄의식과 함께 공존 의식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감정이 지속성을 강조함.





내용 이해 피드백 문제



1. 「징 소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몰된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O , X)
2. 작품의 중심 갈등은 개인 간의 사적 원한에서 비롯된다. (O , X)
3. 징 소리는 작품 전반에서 반복되며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한다. (O , X)
4. 징 소리는 주로 객관적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울리는 소리로 제시된다. (O , X)
5. 칠복(징헌)은 고향 공동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다. (O , X)
6. 칠복의 환각은 개인적 정신 이상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O , X)
7. 방울재 마을의 수몰은 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O , X)
8. 이 작품은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부각한다. (O , X)
9. 공동체 사람들은 모두 가해자로만 묘사된다. (O , X)
10. 작품 속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개인을 배제하는 선택을 한다. (O , X)
11.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라는 말은 개인적 악의의 발현으로만 해석된다. (O , X)
12. 이 작품은 개인의 비극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드러낸다. (O , X)
13. 서술은 인물의 인식에 밀착된 방식으로 전개된다. (O , X)
14. 독자는 현실과 환각이 교차하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게 된다. (O , X)
15. 작품의 갈등은 선과 악의 도덕적 대립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O , X)
16. 징 소리는 과거 공동체의 기억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O , X)
17. 칠복은 공동체의 현재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O , X)
18. 작품은 공동체의 선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 (O , X)
19. 이 작품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O , X)
20. 작품 속 인물의 고통은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제시된다. (O , X)
21. 「징 소리」는 인간 소외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O , X)
22. 작품의 배경 공간은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O , X)
23. 환각 장면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O , X)
24. 이 작품은 개인의 감정보다 사회 구조를 우선적으로 드러낸다. (O , X)
25. 칠복의 추방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한다. (O , X)
26. 작품의 결말은 상실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됨을 암시한다. (O , X)
27. 징 소리는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을 동시에 내포한다. (O , X)

28. 이 작품은 근대화 과정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O , X)
29. 공동체와 개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제시된다. (O , X)
30. 「징 소리」는 현실과 분리된 순수한 미적 자율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O , X)



1. O 2. X 3. O 4. X 5. O 6. X 7. O 8. X 9. X 10. O 11. X
 12. O 13. O 14. O 15. X 16. O 17. O 18. X 19. O 20. X 21. O
 22. O 23. O 24. O 25. X 26. O 27. O 28. O 29. O 30. X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골에서 벌어 온 돈마저 모두 까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방앗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았다.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면서도 방울재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도 징에서 마치 방울재 할머산 너덜경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슴하게 들려오곤 했다.

그때마다 방울재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칠복은 수몰된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낚시꾼들의 불안을 산다. 이에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재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기로 한다.

“강촌 영감님, 부탁드립니다유. 지발 쫓아내지만 마셔유. 다시는 훼방 치지 않겠구먼유. 이렇게 빌게유.”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로 달려붙어 어깨죽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발팔 빌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울대에 ㉣뜨거운 무엇이 타오르면서 시울이 시큰시큰했다.

“안 가겠다면 덕석몰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거여!”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덕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했으나,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등물고 참아 냈다. 강촌 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이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사람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 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밥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높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허니께 하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거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구석 저 구석을 콕콕 쏘서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찝섬찝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더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딱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셔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 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의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뒷관의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까이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 문순태,

「징 소리」

01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인물의 외적 행동보다 인식의 왜곡과 감각의 반복을 통해 내면을 형상화한다. 특히 특정 청각 이미지는 현실 인식의 붕괴를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이러한 장치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서술 전략이다.

- ① 징 소리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청각 이미지는 인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거리화한다.
- ③ 반복되는 소리는 인물의 내면 불안을 외화하는 장치이다.
- ④ 환각 장면은 서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감각적 이미지는 배경 묘사를 사실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글 속의 '환각'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대 소설에서 환각은 비현실적 요소가 아니라 인물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환각은 현실 부정이나 현실을 건디지 못한 결과로 제시될 때,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 ① 환각은 서사의 사실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② 환각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환각은 인물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관계가 있다.
- ④ 환각은 인물이 상실의 현실을 내면화한 결과이다.
- ⑤ 환각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구조적 현실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현실 조건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존재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① 칠복과 방울재 사람들의 갈등은 윤리적 대립이다.
- ② 방울재 사람들은 가해자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 ③ 갈등은 산업화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갈등은 오해에서 발생한 일시적 충돌의 결과이다.
- ⑤ 갈등은 개인 성격 차이에서 기인하면서 전개된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반복 제시는 특정 의미를 강화하는 동시에 독자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특히 감각적 이미지의 반복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점층적으로 심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 ① 징 소리의 반복은 사건 전개의 속도를 조절한다.
- ② 반복은 단조로움을 유발해 긴장을 약화한다.
- ③ 반복은 인물의 집착과 내면 붕괴를 강화한다.
- ④ 반복은 서술자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 ⑤ 반복은 상징 해석을 차단한다.





05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에서 서술자가 인물 중심 서술을 할 때에는 서술자의 판단을 최소화하고, 인물의 지각과 감각에 밀착하여 사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독자는 인물의 인식 한계까지 함께 경험하게 된다.

- ①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 인식을 초월해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인식의 왜곡까지 포함되어 서술 형태가 드러난다.
- ③ 사건의 객관적 진실이 우선 제시되는 관조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중심이 되고 있다.
- ⑤ 독자의 주관적 해석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형태의 서술 방식이다.

06 이 소설의 결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복의 퇴장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한다.
- ② 징 소리는 인물의 광기가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 ③ 결말은 개인의 비극을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한다.
- ④ 징 소리는 서사적 여운을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 ⑤ 결말은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다.

07 ㉔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존을 위한 실질적 생활 도구이자 삶의 흔적이다.
- ② 인물의 경제적 처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고향과 공동체를 대체하는 정서적 상징물이다.
- ④ 서사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자기 위안의 존재이다.
- ⑤ 사건 전개를 가속화하며 긴장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08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존을 위해 칠복을 희생시킨 냉혹한 가해자이다.
- ② 개인적 감정에 따라 일관성 없이 행동한다.
- ③ 윤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다.
- ④ 산업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다.
- ⑤ 갈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칠복에게 전가한다.

09 [보기]를 참고하여 소설 전체의 비극성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서사적 장르의 이야기에서 비극성은 개인의 성격 결함보다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인물은 선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구조에 의해 제한된 존재로 제시된다.

- ① 칠복의 집착적인 성격과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것이다.
- ② 산업화로 인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물로 인한 것이다.
- ③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기심과 배타적 행위 때문이다.
- ④ 인물 간 오해의 누적과 반복적 이상 행동 때문이다.
- ⑤ 우연적 사건의 연쇄적 발생과 이에 대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칠복이와 방울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라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 방식, 문화, 사회 구조, 국가의 성격까지 결정한다고 보는 '환경 결정론'을 주장했다. 그는 그는 기후, 지형, 토양, 자원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 발전을 규정하고, 인간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다.

- ① 칠복이와 방울재 사람들은 댐 이전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유사한 의식을 형성했을 수 있겠군.
- ② 환경의 변화는 칠복이와 방울재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군.
- ③ 방울재 사람들의 배타적 행위 안에는 환경의 변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군.
- ④ 방울재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을 요구하는 칠복이에 대한 거부 반응은 환경과는 무관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군.
- ⑤ 징소리에 대한 지속적 압박은 방울재 사람들이 환경 변화 이전의 심리 상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11 이 글의 주제를 집약해 종합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광기가 초래한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 ② 공동체 내부의 윤리 붕괴를 고발한 작품이다.
- ③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과 인간 소외를 그린 작품이다.
- ④ 가족 해체의 비극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 ⑤ 기억의 힘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16 이 글에 대한 평가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수몰된 마을이라는 구체적 현실을 배경으로, 공동체 해체가 개인의 내면에 남긴 상처와 기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작품에서 징 소리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장치인 동시에, 과거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적 상실을 환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 ③이 작품은 인물 간의 갈등을 도덕적 선악의 대립 구도로 제시하여, 공동체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분명히 드러낸다.
- ④작품의 서술은 인물의 인식에 밀착되어 전개됨으로써, 독자가 현실과 환각이 교차하는 인물의 내면 상태를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 ⑤이 작품은 개인의 비극을 통해 근대화라는 사회 구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설) 징 소리는 반복적 청각 이미지로 인물의 불안·집착·정신적 붕괴를 외화한다.
오답 피하기(틀린 곳)
① 순서 제시 / ② 객관화 / ④ 긴장 완화 / ⑤ 사실성 강화

02 [정답] ④
해설 | 칠복의 환각은 고향 상실을 견디지 못한 심리의 결과이다.

03 정답 ③
해설 | 갈등의 근원은 산업화로 인한 생존 조건의 충돌이다.
오답 피하기 ①·② 단선적 해석 / ④·⑤ 축소 해석

04 정답 ③
해설 | 이 소설에서 소리의 반복이나 행위의 반복은 집착·불안의 심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5 [정답] ②
해설 | 인물 인식 중심 서술은 왜곡까지 포함한다.
[오답 피하기] ①·③·④·⑤ 시점 오해가 이루어진 진술이다.

06 정답 ③
해설 칠복이 떠난 뒤에도 징 소리가 남아 개인의 비극이 공동체 전체의 상처임을 드러낸다.

07 정답 ③
해설 | 짐은 칠복에게 딸·고향·공동체를 대신하는 정서적 대상이다.

08 정답 ④
해설 | 방앗재 사람들 역시 구조적 피해자이며, 생존 조건 속에서 가해자가 된다.

09 정답 ②
해설 비극의 근본 원인은 댐 건설로 대표되는 산업화 구조이다.

10 [정답] ④ 칠복이의 귀향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귀소적 본능에 의한 것이지 마을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칠복이에 대한 배타성은 환경이 영향을 주어 변화된 마을 사람들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11 정답 ③
해설 | 산업화·상실·소외를 종합해야 주제가 정확하다.
오답 피하기

12 [정답] ⑤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는 서술을 통해 환청에 대한 주체는 봉구로 봐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리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13 정답 ③
해설 (반영론적 관점 중심)
③은 「징 소리」를 사회·역사적 현실의 반영물로 파악하고 있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문학은 개인의 감정이나 자율적 형식에 앞서, 당대의 사회 구조와 역사적 모순이 작가의 인식 과정을 거쳐 형상화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이 작품에서 산업화로 인한 수몰과 강제 이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 혼란과 환각(징 소리)으로 매개되어 재현된 구조적 비극이며, 징 소리는 개인의 환청을 넘어 공동체적 상실의 역사적 기억을 상징한다.
따라서 사회 현실 → 인물 내면 → 상징이라는 변증법적 반영 구조를 정확히 짚은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선지별 분석)
① 절대주의 (형식 중심), ② 표현론 (작가 중심) ④ 효용론 (교훈·기능 중심) ⑤ 관념론적·초월적 해석

14 정답 ③ (ㄱ, ㄷ, ㄹ)
(해설)
ㄱ은 징 소리를 개인의 환청이 아닌 공동체적 상실과 집단 기억의 상징으로 파악하고 있어 작품의 핵심 상징을 정확히 짚고 있다. 이는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ㄷ은 방앗재 마을의 수몰을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폭력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어, 배경을 단순한 무대로 환원하지 않고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해석한 점이 적절하다.
ㄹ은 작품의 서술 방식이 인물의 주관적 인식에 밀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가 인물의 내면 혼란과 상실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15

정답 ③
(해설)

③은 방울재 사람들이 징헌을 개인적으로 적대하거나 조롱하려는 감정에서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 말은 개인적 악의의 표현이라기보다, 산업화로 인해 붕괴된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비극적 배제의 결과로 제시된다. 방울재 사람들 역시 피해자이며, 징헌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 모욕이 아니라 현실 적응을 위한 집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③은 부적절하다.

16

정답 ③
(해설)

③은 이 작품이 갈등을 도덕적 선악의 대립으로 단순화하고, 공동체의 선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 소리」는 공동체의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산업화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 선택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둔다. 작품의 갈등은 윤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조건이 낳은 모순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③은 전체 감상으로 부적절하다.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공유,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을 원하시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